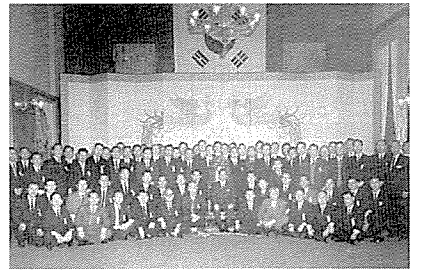


우 리나라는 지금 경제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국내산업의 공동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놓여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 1965년 1월 14일, 제1회 기술사 일동이 청와대를 예방하여 박정희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32년의 역사 ... 정회원 9천여명 한국기술사회

1963년 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64년 농업, 기계, 광업 등
13개 부문, 64개 전문분야에서
67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고
이 기술사들이 모여
65년 2월 한국기술사회를
창립했다. 77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기술사회는 현재 22개분야
96개 종목에 정회원 9천여명의
큰 단체로 성장했다.

는 절대적으로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종 공학부문의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의 역할 및 기술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점차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명실공히 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술선구자를 말한다. 또한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업무수행능력 증대 및 품위유지에 힘쓰며 해외기술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가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1965년 법인 설립인가

〈연혁 및 현황〉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 각국에서 자국의 고급 산업인력 확보방안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었던 기술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

입되어 기술사법으로 제정된 것이 1963년 11월이었다. 그 이듬해인 1964년 12월 농업, 수산, 임업, 전기, 기계, 화공, 섬유, 금속, 광업, 선박, 항공기, 건설, 응용이학의 13개 부문 64개 전문분야에서 67명의 제1회 기술사가 배출되었고, 이들 67명이 국립공업연구소에 모여 창립총회를 연 것이 1965년 2월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행에 따라 민생용(民生用) 소비재와 기초적인 생산재의 국산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도로·항만·전력·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외자도입과 타당성검사 등 기술인력의 동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시기였다. 1965년 3월에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을 인가(경제기획원 제8호)받았으며 1967년 3월 과학기술처의 신설로 기술사주무부처가 경제기획원에서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었다. 1974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첫 기술사(제11회)가 배출되었고 1976년 12월에는 기술사법폐지법률(법률 제2994호)에 의하여 기술사법이 폐지되었다가, 1992년 11월 기술사법(법률 제4500호)이 부활,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술사사무소 등록업무를



成 樂 正
(한국기술사회장)



▲ 아시아·태평양 과학기술지도자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홍콩 등의 기술사회 대표들의 모임으로 아·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공동체 역할이 설립목적이다. 지난해 4월 22~4월 24일 중국 북경에서 FEISEAP의 CAS 및 AAAS가 공동 주최한 바 있으며 본회를 대표하여 16대 성낙정회장이 참석,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수락(기술사법시행령 제19조)받음과 동시에 법인변경인가(공익)를 받게 되었다.(1977년 사단법인으로 변경되었었다) 본회는 1997년 4월 현재 22개분야 96개 종목에 정회원 9천여명, 기술사사무소는 5백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부 5개, 부문회 13개, 분회 36개에 달한다. 집행기구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임이사 3인, 이사 41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학술활동으로는 연 6회의 「기술사」지를 발간하며 수시로 개최되는 강연회, 좌담회, 산업시찰 및 견학 등이 있으며 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술사 보수교육을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으로 한·일합동심포지엄을 매년 양국의 기술사회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 4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동남아태평양지역공학연합회(FEISEAP) 제9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다.

또한 1996년 6월26일부터 3일간 본회 회원 10명과 일본 기술사회 회

원 5명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경제기술교류협력 타당성 조사를 위해 북한의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현장답사를 했으며, 호주 기술사협회(IEA)와 3년마다 1회씩 기술정보교류를 위해 세미나를 갖기로 지난해 체결을 맺었고 1997년 5월에는 8명의 본회 회원들이 세미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바 있다.

최신기술 도입해 국내 보급

〈추진사업 및 청사진〉 본회는 기술사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을 통한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기술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각종 사고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기술사훈련원을 설치·운영하고 기술사에 대한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일원화하여 전담하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산업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기술사 개인 및 기술사회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날로 발전하는 최신 기술을 신속히 도입, 국내에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와 공동 주관하여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 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기술사 보수교육 광경

“과학기술인력 표준조사표”를 작성하고 개인 정보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기술사 상호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콤 천리안 내에 통신망을 개설하여 각종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사법을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보완하고 기술사 활용시책강구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며 우선 기술사시험을 기술사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사법 개정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본회 회원중 원로회원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각 중소기업의 기술자문에 응하고 지도하게 하여 우리 기술사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산업기술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무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민원인으로부터 위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술조사·진단·판단·중재 등을 함으로써 각종 산업기술에 관한 지도계몽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술사들의 연구활동 등 과학기술을 응용한 현장기술을 학술활동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논문집발간 계획도 기술시대에 맞추어 본회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본회는 기술사직무의 개발과 기술사의 업무수행능력 증대, 기술향상 도모 및 해외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UR개방과 WTO체제하의 국가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고 OECD회원국의 긍지를 가지고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부응하며, 기술사의 품위보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㉞